

어머니의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이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 자녀 관계의 매개효과

The Influence of Mother's Child-based Self-worth on the Maternal Depression :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child Relationship

최경애, 유금란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Kyong-Ai Choi(kachoi0301@hanmail.net), Kumlan Yu(kyu@catholic.ac.kr)

요약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의 성취에 자신의 가치감을 수반시키는 경향(자녀 수반 자기가치감)과 부정적인 부모 자녀 관계, 그리고 어머니의 우울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국에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 400명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 척도, 부모 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척도, 우울(CES-D) 척도 순으로 구성된 설문을 실시하고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어머니의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 부모 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우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들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연구 모형 검증 결과, 어머니의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모 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및 후속연구 제언을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 | 한국 어머니 | 부모 자녀 관계 | 우울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 of the mother's tendency to base her self-worth on the child's achievement(child-based self-worth), negative parental relationship, and the mother's depression. For this purpose, 400 Korean mothers with children in middle and high schools completed the survey including Child-based Self-worth Scale, Adolescent-Parent relationship Scale, and CES-D scale. SPSS 18.0 and AMOS 18.0 were used to analysis procedur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mother's child-based self-worth, dysfunctional parent-child interaction, and depression were positively correlated to one another. Second, dysfunctional parent-child interaction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child-based self-worth and depression. Lastly, this study discussed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s well as proposals for future research.

■ keyword : | Child-based Self-worth | Korean Mothers | Parent-child Relationship | Depression |

I. 서론

높은 교육열이 한국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문제이기도 하다[1]. 특히, 1990년대 이래 계속된 신자

우주의 글로벌 경쟁체제라는 변화의 맥락에서 자녀 교육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2], '매니저 엄마' 담론이 보여주듯, 어머니들은 자녀 교육을 위한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압박받고 있다[3][4]. 이러한 압박

접수일자 : 2019년 03월 28일

수정일자 : 2019년 04월 29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5월 20일

교신저자 : 유금란, e-mail : kyu@catholic.ac.kr

속에서 한국의 어머니들은 학업에서의 성취를 자녀교육의 최우선 가치로 삼으면서 자녀가 치열한 성적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한다[5].

이러한 자녀 교육경쟁에 관하여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적인 측면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현상이 어머니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하다[1]. 한국 어머니들은 자녀의 학업적 성취에 높은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의 성취를 마치 자신의 것으로 여기면서 이를 통한 대리 만족감을 인생에서 중대한 목표로 삼아왔다[6]. 이러한 특성을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공과 실패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경향[7]인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Child-based self-worth)[8]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는 과도한 교육열이 어머니와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구인이 될 것이다[5].

Crocker와 Wolfe[9]의 '자기가치감 수반(隨伴)성 이론(contingencies of self-worth theory)'에 따르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정 영역에서의 자기 평가가 전반적인 자존감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9][10]. 즉, 자존감의 높고 낮음 그 자체보다는 개인이 자신의 자기가치감이 수반된 영역에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자존감의 상승이나 추락 같은 자존감의 취약성이나 불안정성이 더욱 중요한 측면이라는 주장이다[9]. 따라서 각 개인이 어떤 영역에 자기가치감이 강하게 수반되었는가는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 정서적 고통이나 정서적 고통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이 될 수 있다[10][11]. 자기가치감은 대인관계에도 수반할 수 있다[12]. 자기가치감의 근간이 되는 자기구성(self-construal)은 타인을 내포하는 것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13] 다른 사람의 성취가 자신의 성취가 될 수도 있다[5][14]. 특히 부모 자녀 관계는 부모가 자녀에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만큼 자녀의 성취에 부모의 자기가치감이 수반될 수 있는데[15], 이러한 경향성을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이라고 한다[8].

자기가치감 수반성은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해 있는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Marcus와 Kitayama[16]은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의 차이를 '독

립적 자기'와 '상호의존적 자기'의 차이로 설명하는데, '독립적인 자기' 개념이 더 보편적인 서양에 비해 '상호의존적인 자기' 개념이 더 보편적인 동양에서 부모들이 자녀의 성취에 자신의 가치를 수반시키는 경향성이 두드러질 수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등의 동아시아에서는 체면과 성취를 중시하고[17], 유교사상에 근거한 집단주의가 발달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은 혈연 위주의 가족중심 집단주의 사회로[18] 자녀와 어머니가 독립된 개인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어머니 자아의 확대로 자녀의 존재를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19]. 또한 급격히 경제가 발전하고 서구 문화가 유입되는 전환기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는 개인의 성취, 경쟁에서의 승리, 우월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주의 문화의 영향으로[20] 학업적 성취를 하고자 하는 동기와 경쟁이 더욱 강력해졌다[21][22]. 이렇듯, 자녀의 학업적 성취에 어머니의 자기가치감을 수반하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5],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 가치감이 자녀와 어머니의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자녀수반 자기 가치감과 어머니의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는 드물지만, 일반적으로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우울이나 약물 남용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다[11][23]. 특히, 타인의 승인이나 외모, 경쟁 등과 같은 외적인 영역에 자기가치감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신의 사랑이나 도덕성과 같은 내적 수반성의 경우보다 정서적 고통감과 우울 등과 같은 문제행동과 관련되었다[24]. 국내 연구에서도 타인의 승인이나 우월성 등 외적인 영역에 자기가치감을 수반하는 경우에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검증하였다[25]. 따라서 자기가치감 수반성 이론에 따르면 어머니가 자녀의 성취에 수반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성취에 수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적인 평가에 의존하므로 우울에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울증을 겪는 중년여성들의 생애 경험에 대한 질적인 연구에서 '강한 교육열과 애착을 넘어선 집착'이 중요한 범주로 드러난 바 있듯이[26], 어머니가 자녀의 성취에 자기 가치감을 지나치게 수반하는 경우에 어머니의 우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금까지 어머니의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주로 심리적 통제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8][15][27]. Ng 등[8]은 어머니의 자기가치감 수준과 심리적 통제 행동 간의 관계를 미국 어머니와 중국 어머니를 비교하여 연구한 결과, 미국 어머니에 비해 중국 어머니들의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이 더욱 높았으며, 두 국가 어머니 모두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이 높을수록 1년 뒤에 심리적 통제를 더욱 많이 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Grolnick 등[15]은 어머니가 자녀의 사회성에 수반된 자기가치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사회성을 평가받는 실험조건에서 자녀의 수행에 간섭하는 통제수준이 더욱 높음을 검증하였다. Wuyts 등[27]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및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통해,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 수준이 변화하면 성취지향적인 심리적인 통제도 변화한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과 심리적 통제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초등과 중등 연령과 부모 모두에게 일반화 시킨 바 있다. 더 나아가 국내에서는 설경옥 등[5]이 초등학생과 그들의 어머니 및 교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이 양육행동과 자녀의 심리적인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심리적인 통제를 매개로 자녀의 심리적인 부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검증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과 어머니의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모 자녀 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주목했다.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이 부모 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는 아직 미흡하지만,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이 높은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으로 심리적인 통제를 사용함과 동시에 자녀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5]. 자기가치감 수반성 이론에 의하면, 자기가치감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몰두는 자기가치감이 수반된 영역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민감하게 하고 타인의 관점을 취하거나 감정을 고려하기 어렵게 하며[23][28][29],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5][29]. 마찬가지로 어머니들이 자녀의 성취를 통해 자신의 가치감을 고양시키려고 하는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이 높을수록, 자녀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 부모의 자기가치감이 곤두박질치게 되며, 그 결과로

자녀의 발달적 성취에 관심을 가지는 자녀 중심의 관점을 취하기보다는 오로지 자녀의 성공을 향한 부모 중심의 관점을 취하게 된다[27]. 이러한 지나친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은 자녀의 정서적 요구나 자녀와의 관계의 질을 간과하게 하고 특히 성취에 실패했을 때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하는 등 부모 자녀 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5][30].

특히, 발달 단계상 정체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청소년기에는 부모가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양육방식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31].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심리적인 통제가 어머니-자녀 간 관계 만족도를 저하시켜 자녀의 외로움 및 분노 등 자녀의 내재적 문제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2]. 또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불안, 갱년기에서 오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 등을 경험하는 시기이며,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월등히 높아 부모 자녀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자녀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반복함으로써 자녀와 어머니 모두에게 우울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33][34]. 부모 자녀 관계(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는 부모 자신에 대한 영역, 자녀에 대한 영역을 함께 포함하여 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구성하는데, 자녀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보면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우울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35-37]. 따라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이 어머니에게 양육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취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는 한국 어머니들의 특성에 주목하며,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부모 자녀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적인 적응, 특히 우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과도한 교육 경쟁 분위기에 반응하는 어머니들의 심리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어머니들의 정신건강과 부모 자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담 및 심리 전문가들이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개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은 동양 문화권에서 이미 오랫동안 강하게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현상이기 때문에 [8][16] 그 자체로 어머니들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지 혹은 역기능적 부모 자녀 관계를 매개로 어머니들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설경옥 [5]의 연구에 의하면 자녀와 어머니 간 관계가 상호의존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적 맥락에서는 어머니 자신의 가치감을 자녀의 성공으로부터 고양시키는 자체보다 부정적인 양육방식인 심리적 통제를 통해 자녀들의 심리적 적응이 위협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상황에 기초하여 어머니의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 부모 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어머니의 우울 간에 완전매개모형을 가정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1. 어머니의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 부모 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어머니의 우울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어머니의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과 어머니의 우울간의 관계를 부모 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이 매개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전국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했다. 설문지를 포함한 연구절차는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1040395-201510-08)을 받은 후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에 의한 자료 수집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온라인 설문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전국의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를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본추출은 온라인 패널 사이트를 통해 자녀 연령별 임의할당 표본추출방식을 사용하여 실시하였고, 설문조사의 대상자들에게 연구 참여

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고, 동의하는 경우 본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정도였으며, 설문에 응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적립금이 제공되었다.

어머니의 연령대는 30대가 33명(8.3%), 40대가 355명(88.8%), 50대 이상이 12명(3%)으로 40대가 가장 많았다. 지역은 서울(52.3%)이 가장 많았으며, 부산(12.5%), 인천(9%) 순이어서 서울에 편중되었다. 자녀 수는 2명(64%)이 가장 많았고 1명(25%), 3명(10%), 4명 이상(1%) 순이었다. 다자녀의 경우에는 설문 대상인 어머니가 자녀에 따라 다르게 응답할 수 있으므로 대상을 첫째 자녀로 한정하였다. 설문에 응답할 때 대상으로 한 자녀가 남학생(51%)인 경우와 여학생(49%)인 경우가 유사했다. 또한 중학생 자녀는 189명(45.4%)이었고 고등학생 자녀는 204명(55.6%)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을 보면 대졸(73.8%)이 가장 많았고 고졸 이하(17.8%), 대학원졸업 이상(8.5%)의 순이었다. 직업 형태로는 전업주부(42.5%), 정규직 및 사무직(42%), 프리랜서(5%) 등의 순서였다. 혼인 상태로는 결혼 지속(94%)이 대다수였으며 이혼(4%), 사별(1%) 등은 소수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설문 대상자가 느끼는 생활수준은 중(48.5%), 중하(28.8%), 중상(18.3%), 하(3.3%), 상(1.3%) 순이었다.

2. 측정 도구

2.1 어머니의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 척도

어머니의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을 측정하기 위해 Eaton과 Pomerantz[39]가 개발한 Maternal Child-based Worth 척도를 설경옥 등[5]이 번역하고 타당화한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5 문항(예: “우리 아이가 남보다 잘하면, 나 자신이 훌륭하게 느껴진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 7점 척도로 평정된다(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성취에 자기 가치감을 높게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설경옥 등[5]의 연구에서 보고한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의 신뢰도 계수는 .89였고 본 연구에서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2.2 부모 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부모 자녀 관계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로는 성경미 [39]가 개발한 청소년 자녀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 중 에서 청소년 부모 관계 영역의 15문항(예: “내 자녀는 나에게 함부로 말한다.”)이며 리커트 4점 척도로 평정 된다(4=매우 그렇다, 1=전혀 그렇지 않다). ‘정서적 친밀감’,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 ‘자녀에 대한 관심’ 등의 하위 요인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소년 자녀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 전체 신뢰도 계수는 .93이며 청소년 부모 관계 영역의 신뢰도계수는 .84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부모 관계 영역의 신뢰도계수는 .85로 나타났다.

2.3 우울 척도

어머니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CES-D) [40]을 신승철 등[41]이 번안하여 한국형으로 표준화시킨 것을 사용하였다. 총 20개 문항으로 (예: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각 문항에 대해 일주일 동안 우울을 경험한 빈도를 기록하는 것으로 0점(전혀 없었다)부터 3점(매일 있었다)까지 응답할 수 있으며 가능한 총 점수는 0 ~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승철 등[41]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4이다. CES-D 척도는 기존 연구 및 본 연구에서 모두 1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개선하기 위해 문항무리미 제작(item parceling)을 통해 네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41]. 본 연구에서 CES-D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90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측정오차를 모델에 포함시키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선택했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전반적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고 범주 별 인원과 그 비율을 살펴보았다. 둘째, 평균과 표준편차 및 최소값과 최

대값을 알아보고 정규분포 검증을 위해 첨도와 왜도를 살펴 보았다. 셋째, 변인들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를 측정하였고, 변인 간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추정하였다. 넷째, 측정 모형 검증을 실시 하고 분산 추출 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와 구성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를 추정하였다. 다섯째, 연구 모형을 검증하고 개발 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 확인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 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1.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

연구를 위해 측정된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그 결과 자녀 수반 자기 가치감은 부모 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고($r=.25, p<.001$), 우울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r=.16, p<.001$). 부모 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도 우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r=.46, p<.001$).

표 1. 연구 변인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분석

변인	1	2	3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	-		
부모 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25***	-	
우울	.16***	.46***	-
M	3.98	2.05	1.93
SD	.97	.37	.47
왜도	-.46	-.41	.49
첨도	.36	.19	-.10

* $p<.05$, ** $p<.01$, *** $p<.001$

2.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부모 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검증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 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이 매개하는 지 여부를 알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기 위해 기본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했으며, 경쟁 모형과 연구 모형을 설정하여 더 적합한 모형을 채택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2.1 측정 모형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연구가설 검증 이전에 설문을 통한 자료 측정의 구성타당도를 보여주는 측정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CFI, TLI의 경우에는 .90이상이고 1에 가까우면 ‘좋은’ 적합도, RMSEA의 경우 .05 이하일 경우 ‘좋은’ 적합도, .08 이하일 경우에는 ‘괜찮은’ 적합도, .10 이하일 경우 ‘보통’ 적합도, .10 이상일 경우 ‘나쁜’ 적합도로 판단한다[42]. 분석 결과,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과 부모 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우울에 관한 측정 모형의 검증 결과, CFI는 .971, TLI는 .960, RMSEA는 .071(90% 신뢰구간=.055-.087)로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표 2. 측정 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CFI	TLI	RMSEA(90% 신뢰구간)
연구 모형	95.759	32	.971	.960	.071 (.055-.087)

다음으로 구성개념과 지표 간 관련 강도를 의미하는 요인 부하량과 그로부터 추정된 분산 추출 지수(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및 구성개념 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를 추정하였다. 각 변인들의 AVE값과 CR값은 모두 기준치(AVE≥.5, CR≥.7)이 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2 연구 모형 검증

각 변인들 간 선행연구와 이론적 관계를 바탕으로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모 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이 완전 매개하는 모형을 연구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경쟁 모형으로는 부분 매개 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χ^2 는 95.916, 자유도(df)는 33, TLI는 .961, CFI는 .972, RMSEA는 .069(90% 신뢰구간=.053-.085)로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경쟁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χ^2 는 95.759, 자유도(df)는 32, TLI는 .960, CFI는 .971, RMSEA는 .071(90% 신뢰구간=.055-.087)로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경쟁모형에서 추가한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과 우울 간의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 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CFI	TLI	RMSEA(90% 신뢰구간)
연구 모형	95.916	33	.972	.961	.069 (.053-.085)
경쟁 모형	95.759	32	.971	.960	.071 (.055-.087)

연구 모형과 경쟁모형의 χ^2 차이검증 결과 경쟁모형이 연구 모형에 비해 $\Delta df=1$, $\Delta \chi^2=0.157$ 감소한 것이 유의도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간명도가 높고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설정한 연구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했다.

최종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과 부모 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30 ($p<.001$), 부모 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과 우울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55($p<.001$)로 나타났다[그림 1].

2.3 매개효과 검증

다음으로 부트스트랩 절차에 따라 2000개의 표본을 원자료(N = 400)로부터 생성 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간접효과의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판단한다. 부트스트랩검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 → 부모 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 우울 경로는 95% CI에서 BC(.03, .10)가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도 수준 5%에서 유의했다.

따라서,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 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이 완전 매개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간접효과 추정치

	path	B	SE	95% CI
direct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 → 부모 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10***	.02	.06 .16
indirect	부모 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 우울	.59***	.07	.49 .71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 → 부모 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 우울	.06***	.01	.03 .10

* $p<.05$, ** $p<.01$, *** $p<.001$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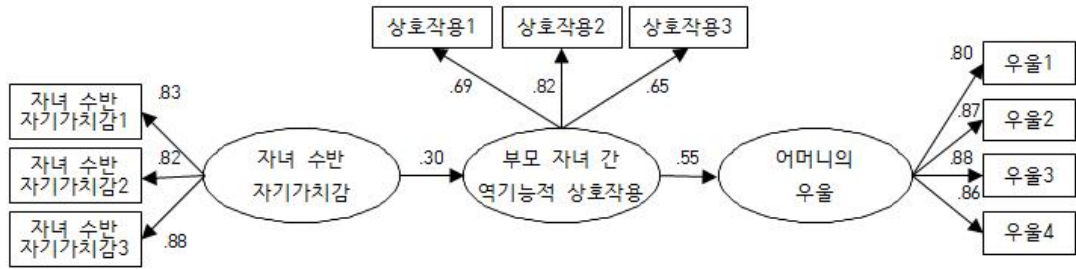


그림 1.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 부모 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우울의 구조모형

로 어머니들의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부모 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려 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이 부정적인 부모 자녀 관계인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통해 어머니의 심리적인 적응을 저해할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전국의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보고한 자료를 수집하여 검증한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은 지지되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 부모 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우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변인들 간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우선,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은 부모 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경험적인 선행 연구는 없지만, Crocker와 그의 동료(2004)에 따르면, 자기가치감의 추구가 목적이 될 때 타인의 욕구와 감정을 간과하게 되고 자기가치감이 위협되는 상황에서 회피하거나 화를 내거나 비난할 수 있기 때문에[29][43]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지지적인 관계를 맺는 게 저해되고, 결국은 관계에서 고립된다고 보았고[44], Park과 Crocker의 연구[29]에서도 개인의 자기가치감과 관련된 목표 추구가 타인을 향한 지지행동과 부적 상관이 있음을 검증했는데, 본 연구의 결과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다음으로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은 우울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이 자신의 심리적인 부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지만 타인의 승인이나 외모, 경쟁 등과 같은 외부적인 자기 평가에 자기가치감을 수반하는 경

우에 우울과 정적 상관을 나타낸 선행 연구 [11][23][25][45][46]들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모 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은 우울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자녀와의 정서적 친밀감이나 자녀의 부모에 대한 감정과 태도 등을 포함하는 부모 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많이 느낄수록 자녀 양육 스트레스로서 우울을 더욱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우울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 연구[35-3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결과, 어머니의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이 부모 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완전매개로 우울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 자체가 어머니의 심리적인 적응을 저해하는 직접경로보다 자녀의 성취에 어머니 자신의 가치를 수반하면서 발생한 역기능적인 부모 자녀 관계가 어머니의 심리적인 적응을 저해하는 간접 경로가 더 유의미했다. 이는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가 상호의존적인 문화적 맥락에서는[47] 자녀의 성공에 어머니가 자신의 자기가치감을 수반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현상이어서 어머니의 우울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이 부모 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을 받아서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 자체가 직접적으로 자녀의 심리적인 적응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심리적 통제를 매개로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을 예측할 설경옥 등[5]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이다.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은 자신의 성취에 수반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에 필수

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Ng 등[8] 선행연구들이 어머니의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이 부모 자녀 관계 중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심리적인 통제라는 양육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결과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모성이데올로기를 깊이 내면화할수록 어머니는 자녀에게 자신의 가치감을 더 수반시키게 되며 이는 어머니로 하여금 자녀와의 관계를 덜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여 결국 양육스트레스가 초래된다는 박봉헌, 백용매[48]의 연구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향후 개입에 있어서도 어머니의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이라는 심리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특성이 부모 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해볼 때,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이 부정적인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경로를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 동안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관련된 연구는 심리적 통제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양육행동과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에서 검증한 바 있으나[5] 어머니 본인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검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외부 요소에 자기가치감을 수반시키는 것은 낮은 자존감과 우울 등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49] 예상과는 다르게, 자녀의 성공이 개인적 성공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가족구성원들의 협업의 결과로 여겨지는 상호 의존적인 문화권에서는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심리적 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보다는 부모자녀 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한국 문화에서 어머니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어떤 경로를 통해 자신의 심리적 부적응에 작용하는지 살펴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 자체 보다는 이로 인한 부정적인 부모 자녀관계가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인상담이나 부모자녀 간 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부모 자녀 관계에 개입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성적 및 진로가 자녀관계에서 가장 큰 갈등 요인

[50][51]이라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들이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인 현상 속에서 자녀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으로 여기는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이라는 심리적인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지나친 수반성이 자녀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돕고, 부모 자녀 관계를 저해하는 양육행동이나 역기능적인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개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기 부모 자녀와의 갈등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녀들의 심리적인 적응을 위협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대상으로 중재함으로써[39] 어머니의 심리적인 건강은 물론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독립변인을 조작하지 않고 가외변인을 통제하지 않은 비실험 연구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이 부모 자녀 간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을 매개로 우울로 가는 경로에서 모형 상으로는 변인 간 인과적 관련성을 가정하고 있지만 인과관계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52]. 따라서 정교한 실험 설계를 통해 변인 간 인과 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실험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높은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이 심리적 통제를 종단적으로 예측했는데 [8][27] 후속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을 결과 변인으로 포함하여 종단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추가 연구 또한 필요하다.

둘째, 국내에서 어머니들의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치열해지는 교육 경쟁 속에서 어머니들이 자녀의 학업적 성공을 통해 스스로에 대해 높은 가치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녀의 성취를 추구하고 되는 현상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탐색을 위해서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어머니의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의 개인차를 예측할 선행 요인과 다양한 부모 자녀 변인 등에 대한 활발한 양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이 어머니의 우울로 가는 경로에서 부모 자녀 관계 변인으로 모가 지각하는 부모 자녀 관계를 측정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자녀가 지각한 부모 자녀 관계가 자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어서, 부모가 지각한 부모 자녀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척도의 하위개념으로 부모 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척도를 사용하였기에 본 연구에서 검증했던 모형으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

넷째, 어머니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로 소득, 취업상태, 건강 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53]과 양육 스트레스[54] 및 배우자 지지, 사회적 지지 등의 심리적 요인[55]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외생변수를 통제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선정함으로써[56],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부모자녀관계를 매개로 우울로 가는 경로를 보다 정교하게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설문조사 과정에서 다자녀인 어머니들의 경우에는 첫째 자녀에 대한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과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설문을 조사하였다. 이는 첫째 자녀일 경우에 자녀양육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성취에 대한 기대가 더 높을 수 있으며[57][58], 첫째 자녀가 청소년 시기일 때 부모들이 더 높은 스트레스를 보고한 연구 결과[59]에 기초했지만, 다른 자녀의 기질이나 성별에 따라 부모자녀관계나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또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여 변인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였거나 부주의하거나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자녀 교육에 일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한국적 상황에서 아버지가 자녀의 성공을 자기가치감에 수반하는 경향을 어머니와 비교하여 다룬다면 흥미로운 것이다. Wuyts와 그 동료들[27]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은 유의하게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적인 상황에서 부, 모 각각에 대해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과열된 교육 경쟁 사회에서 어머니들이 자녀의 성취를 자기가치감에 수반시키는 심리적인 특성이

부모 자녀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어머니들이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이라는 자신의 심리 내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부모 자녀 간 상호작용에 개입하여 어머니의 심리적인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했다는 측면이 있다.

* 본 논문은 최경애(2016)의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어머니의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이 부모 자녀 관계와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수정보완한 내용임.

참 고 문 헌

- [1] 박혜경, "한국 중산층의 자녀교육 경쟁과 '전업 어머니' 정체성," 한국여성학, 제25권, 제3호, pp.5-33, 2009.
- [2] 이종각, 김기수, "교육열'개념의 비교와 재정의," 교육학연구, 제41권, 제3호, pp.191-214, 2003.
- [3] 박혜경, "중산층 기혼여성부의 경험세계를 통해 본 가사노동의 성격과 가사 노동 가치인식," 페미니즘연구, 제8권, 제2호, pp.159-196, 2008.
- [4] 박혜경, *신자유주의적 주부주체의 담론적 구성과 한국 중산층 가족의 성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5] 설경옥, 경예나, 박지은,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양육행동과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4권, 제1호, pp.109-131, 2015.
- [6] 박영신, 김의철, "한국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 자녀관계의 영향," 청소년학 연구, 제10권, 제1호, pp.139-165, 2003.
- [7] U. Kim and Y. S. Park, "An indigenous analysis of success attribution: Comparison of Korean students and adults," CONTRIBUTIONS IN PSYCHOLOGY, Vol.42, pp.171-198, 2003.
- [8] F. F. Ng, E. M. Pomerantz, and C. Deng, "Why are Chinese mothers more controlling than American mothers? "My child is my report card," Child Development, Vol.85, pp.355-369, 2014.

- [9] J. Crocker and C. T. Wolfe, "Contingencies of self-worth," *Psychological Bulletin*, Vol.108, pp.593-623, 2001.
- [10] J. Crocker, R. K. Luhtanen, M. L. Cooper, and A. Bouvrette, "Contingencies of self-worth in college students: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85, No.5, pp.894-908, 2003.
- [11] J. T. Sargent, J. Crocker, and R. K. Luhtanen, "Contingencies of self-worth and depressive symptom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25, No.6, pp.628-646, 2006.
- [12] D. T. Sanchez and T. Kwang, "When the relationship becomes her: Revisiting women's body concerns from a relationship contingency perspectiv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Vol.31, pp.401-414, 2007.
- [13] W. L. Gardner, S. Gabriel, and L. Hochschild, "When you and I are "we", you are not threatening: The role of self-expansion in social comparis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82, pp.239-251, 2002.
- [14] A. Aron, T. McLaughlin-Volpe, D. Mashek, G. Lewandowski, S. C. Wright, and E. N. Aron, "Including others in the self,"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15, pp.101-132, 2004.
- [15] W. S. Grolnick, C. E. Price, K. L. Beiswenger, and C. C. Sauck, "Evaluative pressure in mothers: Effects of situation, maternal, and child characteristics on autonomy supportive versus controlling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Vol.43, pp.991-1002, 2007.
- [16] H. R. Marcus and S. Kitayama, "Culture and self: Implication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Vol.98, No.2, pp.224-253, 1991.
- [17] S. C. Choi and S. J. Lee, "two-component model of Chemyon-oriented behaviors in Korea: Constructive and defensive Chemy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33, pp.332-345, 2002.
- [18] 이수인, "집단주의 형성 요인과 과정, 성별 차이에 대한 연구: 수평적-수직적 집단주의에 대한 가족 및 학교경험의 효과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88권, pp.256-299, 2010.
- [19]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IMF 시대 이후 한국학생과 성인의 성공에 대한 의식: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8권, 제1호, pp. 103-139, 2002.
- [20] 이동귀, 양난미, 박현주, "한국형 자존감 평가영역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2권, 제1호, pp.271-298, 2013.
- [21] S. Y. Park and C. S. Cheah, "Korean mothers proactive socialization beliefs regarding preschool's social skill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Vol.29, pp.24-34, 2005.
- [22] J. H. Park and Y. I. Kwon, "Parental goals and parenting practices of upper-middle-class Korean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Early Childhood Research*, Vol.7, pp.58-75, 2009.
- [23] J. Crocker, "The costs of seeking self-esteem," *Journal of social Issues*, Vol.58, pp.597-615, 2002.
- [24] Jennifer Crocker, Riia K. Luhtanen, and Samuel R. Sommers, "Contingencies of self-worth: Progress and prospects," *Journal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15, pp.133-181, 2004.
- [25] 정은선, 하정희, 이성원, "자기가치감 수반성 (우월성, 타인승인)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조절효과," *학교사회복지*, 제40권, pp.95-111, 2017.
- [26] 김하나, *중년 우울증 여성들의 생애 경험에 대한 인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27] D. Wuyts, M. Vansteenkiste, B. Soenens, and A. Assor, "An Examination of the Dynamics Involved in Parental Child-Invested Contingent Self-Esteem,"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Vol.15, pp.55-74, 2015.
- [28] J. Crocker, "Contingencies of self-worth: Implications for self-regulation and psychological

- vulnerability," *Self and Identity : Th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Self and Identity*, Vol.1, No.2, pp.143-149, 2002.
- [29] J. Crocker and L. E. Park, "The costly pursuit of self-esteem," *Psychological Bulletin*, Vol.130, pp.392-414, 2004.
- [30] F. F. Ng, E. M. Pomerantz, S. F. Lam, and C. Deng, "The Role of Mothers' Child-Based Worth in Their Affective Responses to Children's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Vol.90, No.1, pp.165-181, 2019.
- [31] D. A. Nelson and N. R. Crick,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Implications for childhood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B. K.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pp.161-189),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2.
- [32] 안명희, "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 우울: 모-자녀 관계만족도, 분노, 외로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6권, 제3호, pp.737-758, 2014.
- [33] 하여희, "부모 자녀관계와 청소년의 우울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제12권, 제2호, pp.42-52, 2004.
- [34] 유일영,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기적 갈등과 부모의 스트레스," *부모자녀간강학회지*, 제8권, 제1호, pp.17-22, 2005.
- [35] 김유심, *빈곤층 여성 한부모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우울에 관한 대처자원 연구: 영적 안녕감, 가족자원의 조절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36] 이정윤, 장미경, "상담일반: 기혼여성의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부모역할 자긍심의 매개 및 중재효과," *상담학연구*, 제9권, 제2호, pp.339-352, 2008.
- [37] 임은경, 김정규,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성격 특성, 대처방식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계슈탈트상담연구*, 제4권, 제1호, pp.49-67, 2014.
- [38] M. Eaton and E. Pomerantz, *Parental contingent self-worth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2004.
- [39] 성경미, "청소년 자녀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 개발," *정신간호학회지*, 제22권, 제3호, pp.216-229, 2013.
- [40] A. Roth and B. Locke, "Continuous mental health assessment," Presented at the 101st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San Francisco Calif, Nov, 4-8, 1973.
- [41] 신승철, 김만권, 윤관수, 김진학, 이명선, 문수재, 이민준, 이호영, 유계준, "한국에서의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의 사용 -표준화 및 요인구조에 대한 횡문학적 검토" *신경정신의학*, 제30권, 제4호, pp.752-767, 1991.
- [42] 홍세희,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9권, 제1호, pp.161-177, 2000.
- [43] R. F. Baumeister, The self. In D. T. Gilbert, S. T. Fiske, and G. Lindzey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Vol.2, pp.680-740). New York: McGraw-Hill, 1998.
- [44] T. Pyszczynski, J. Greenberg, and J. L. Goldenberg, "Freedom versus fear: On the defense, growth, and expansion of the self," In M. R. Leary and J. P. Tangney (Eds.),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pp.314-343), New York: Guilford Press, 2003.
- [45] R. Burwell and S. R. Shirk, "Self processes in adolescent depression: The role of self-worth contingenci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Vol.16, No.3, pp.479-490, 2006.
- [46] J. Kim and S. Williams, "Linking childhood maltreatment to substance use in use in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self-worth contingencies,"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Vol.18, pp.88-105, 2009.
- [47] A. S. Fu and H. R. Markus, "My mother and me: Why tiger mothers motivate Asian Americans but not European America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40, pp.739-749, 2014.
- [48] 박봉현, 백용매, "모성이데올로기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긍정적 모-자녀관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217-217, 2018.

- [49] M. J. Cambron, L. K. Acitelli, and L. Steinberg, “When friends make you blue: The role of friendship contingent self-esteem in predicting self-esteem and depressive symptom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36, pp.384-397, 2010.
- [50] 박영신, “후기 청소년들의 부모-자녀갈등의 특징과 부모양육행동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학교*, 제13권, 제2호, pp.247-265, 2016.
- [51] 김아연, 박보경, 김수지, 이선희, 도현심,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부모됨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24권, 제8호, pp.161-193, 2017.
- [52] 서영석,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2권, 제4호, pp.1147-1168, 2010.
- [53] 김진이,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만성적 스트레스 경험이 유아기 자녀를 둔 저소득층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25권, pp.25-56, 2009.
- [54] 이정윤, 장미경,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의 관계: 자녀양육관련 비합리적 사고의 매개 효과,” *인지행동치료*, 제9권, 제2호, pp.1-16, 2009.
- [55] 여정희, “출산 후 6개월 여성의 산후우울 정도와 예측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2권, 제4호, pp.355-362, 2006.
- [56] 박수경, 배종필, 한세은, 김소민, “발달장애인 자녀 어머니의 양육부담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12호, pp.579-594, 2018.
- [57] 김병숙, 김경아, “성 및 출생순위가 부모의 자녀 진로 기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제19권, 제1호, pp.1-24, 2006.
- [58] Denise F. Polit and Toni Falbo, “Only Children and Personality Development: A Quantitativ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49, No.2, pp.309-325, 1987.
- [59] S. A. Small, G. Eastman, and S. Cornelius, “Adolescent autonomy and parental stres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17, No.5, pp.377-391, 1988.

저자 소개

최 경 애(Kyong-Ai Choi)

정회원



- 2016년 2월 :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상담학석사)
- 2016년 2월 ~ 현재 : 이화여대 학생상담센터 인턴/레지던트/시간제 상담원

<관심분야> : 대학생상담, 청소년상담, 성인상담

유 금 란(Kumlan Yu)

정회원



- 2004년 : 미국 헨더슨 주립대 학교 상담(석사)
- 2007년 : 미국 아칸소 주립대 상담자교육및수퍼비전(박사)
- 2008년 ~ 현재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 청소년 문제, 상담자 교육 관련 주제, 다문화 주제